



갈보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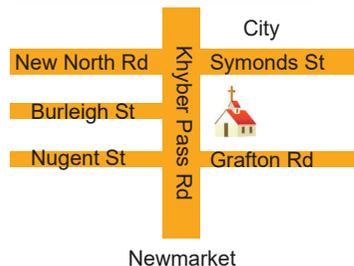
1. 금요저녁기도회가 오는 8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2. 제 2기 갈보리 문화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신청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강좌	강사	장소
화요일: 오전 11:00 - 12:30	중국어 초급	김명옥 집사	베다니실
오후 1:00 - 2:30	중국어 중급	김명옥 집사	베다니실
목요일: 오전 11:00 - 12:30	성인 미술	이상미 사모	베다니실

개강: 2017년 9월 5일 기간: 10주(방학제외) *각 강좌 신청자가 5명이하시 개설하지 않습니다.

3. 매 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암으로 투병중인 김광영 집사 쾌유를 위한 중보기도의 날입니다.
4.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5. 세례를 받고 입교 문답에 참여한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계속적으로 신앙 증진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체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로 성도간의 교제와 영적 성숙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7. 오클랜드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복음의 전함'(사단법인)과 함께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9월 30일(토)부터 10월 29일(주일)까지 매주 금, 토 시내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있습니다(포스터 참조).
8.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 11:20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주일 2부예배	주일 PM 1:00	유 아 부	주일 PM 1:00
청년모임	주일 PM 3:00	아 동 부	주일 PM 1:00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청소년부	주일 PM 1:00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2017년 9월 3일 주일



2017년 표어 ·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신6:4-9)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021-968-388 LTH-07@calvary.org.nz

부목사: 이성철

021-563-634 logosid@hanmail.net

부목사: 박태신

021-077-8382 nuggy308@hanmail.net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예배 안내

주일 2부 예배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62:1-2
◎ 찬 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대 표 기 도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12:6-8
찬양대 찬양	주안에서 기뻐하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같은 지체, 다른 은사 이태한 목사
세 례 식	집례자
찬 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 모임
오후 3시
성경공부
기도 / 이지수 자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임혜자권사
성경봉독	에스더 7:1-10
설 교	넉넉히 이긴다 /이태한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359장
주 기 도	다같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교회일지

세례식: 9월 4일(주일)
 금요저녁기도회: 9월 8일(금요일)
 성찬주일: 9월 24일(주일)
 권사기도회: 9월 24일(주일)
 노회 연합예배: 9월 27일(수요일)

9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박병민/이애란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선화 집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홍진혁 형제
 9월 13일 수요: 김영옥 권사
 9월 13일 애찬: 김은우 집사
 9월 17일 주일: 손조훈 집사
 9월 17일 청년부: 박예원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 영혼 구원에 최우선을 두는 교회가 되도록.
2.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3. 복음의 전함과 함께 펼치는 거리 전도와 9월 23일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지난 달에 마무리한 성경통독 간증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50일 간의 성경 읽기가 끝났다. 일년에 일독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올해는 전교인 이 성경읽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는 부분과 전교인이 함께 읽는 것을 병행하다 보니 이전에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뭐라 표현할 길 없는 감사와 감동, 감격의 시간이었다.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으로 읽으며 요한이 고백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도 베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고백 되어졌다.

말씀을 읽으며 가장 흥분되었던 부분은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을 때였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부분에서는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나도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내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정말로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다.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이 떠오르면 큰소리로 찬양을 하며 읽으니 더 마음에 와 닿으며 눈물 콧물 흘러가며 은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고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을 읽으며 회개하는 시간, 감사의 시간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이전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내 맘속에서 정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졌다. 이제는 이러한 내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며 사랑의 마음을 심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니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며 정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또한 나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며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 나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가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길 다짐한다.